

우리말 성경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 4:12)

허영진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서울의 새문안 교회로 알려져 있다. 새문안 교회는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서 창립하였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참석 교인은 모두 14명이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 중 한 명 뿐이었다. 그는 알렌 선교사의 어학선생으로 일하면서 남몰래 신앙서적을 읽는 중 진리를 깨닫고 자원하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노춘경이란 사람이었다. 그 외 13명은 그 이전에 벌써 세례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줄 알았으나 실은 이미 뿌려진 씨에서 결실한 열매를 거두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새문안 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아니다.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황해도 송천에 목회자 없이 평신도끼리 모이는 솔내교회가 있었다. 평북 의주에도 신자들의 신앙공동체가 존재했다.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시작한 이른바 자생 교회라고도 말한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첫 신자들은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받았을까? 그들은 선교사 보다 먼저 성경을 만났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말 즉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우수한 말과 글을 주시고 또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한글 번역과 보급은 실로 죽어가던 한글을 되살려내고 멸망의 비탈로 내리닫던 한민족을 구원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한문만이 진서라고 숭상하던 모화사상에 젖은 사대부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

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은 오랫동안 세상의 정당한 평가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세기동안 한글은 천한 백성과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언문이라 하여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한 나머지 거의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짓밟히고 죽어가던 한글이 기사회생활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선교사들이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중의 책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보급한 데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통하여 되살아난 한글은 민족역사의 암흑기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글학자 주시경은 "나라의 땅은 독립의 기(基)요 사람은 독립의 체(體)이며 말은 독립의 성(姓)이다. 땅과 사람이 있어도 말이 없다면 독립도 없다."고 말했다.

유명한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의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노예가 되어도 국어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감옥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글은 오늘날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언어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0년 하바드 대학 언어학과 교과서 "East Asia"에서 저자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교수는 "세상에 현존하는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인 언어는 한글이다." 라고 말했다.

1964년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한 프리츠 포스(Flits Vos) 교수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을 발명한 민족이다." 라고 말했다.

시카고 대학의 언어학 교수 제임스 맥콜리(James D. McCawley) 는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위대한 한글을 만들게 하셨다."면서 한글날이면 학교 수업 대신에 축하 파

터를 열었다고 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 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 한글성경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일까?

1870년대 초 우리나라 북쪽 국경지대인 의주지방에서 중국을 드나들며 장사하는 상인들 중에 이응찬이란 사람과 서상륜이란 사람이 있었다. 한약재를 배에 가득 싣고 압록강을 건너던 이응찬이 배가 파선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했다. 처지가 딱해진 그를 선교사 존 로스 목사가 도와주고 한국어 어학선생으로 채용했다.



존 로스 선교사

서상륜은 인삼 장사차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역시 선교사 존 매킨타이어 목사가 치료해주어 살아났다. 두 선교사는 처남 매부 간으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가 중국 만주에 파송한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나섰다가 순교한 사실을 전해 듣고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 두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 한중 국경무역지대인 봉황산 고려문을 찾아갔다. 거기서 많은 조선 사람을 만나는 중에 조선백성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당시의 정세상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응찬과 서상륜에게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두 조



선 사람의 친구인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도 불러다가 성경번역에 착수했다. 이 사람들이 성경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회개하여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들이 되었다.

1882년 마침내 우리말로 된 최초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간되었다. 정식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3년 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서상륜, 백홍준, 이성하 등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경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일이었다. 이성하는 성경 보따리를 객주집에 맡기고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그만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그 재를 압록강에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로스 목사는 "성경 씻은 물 먹은 조선 사람마다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홍준은 성경을 낱장으로 뜯어 그것으로 노끈을 꼬았다. 그는 성경 노끈으로 폐지 뭉치를 묶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강을 건넜다. 의주의 집에 도착해서는 노끈을 풀어 인두질로 편 다음 본디 모양의 성경책으로 엮어서 읽으며 전도하여 반년 만에 10여명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다.

서상륜은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한 권서로 알려져 있다. 권서란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혹은 매서인이라고도 했다. 당시 조선정부의 외교 고문이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도움으로 성경 6천권을 반입하는 데 성공하자 서상륜은 성경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성경을 반포하고 복음을 전했다. 당시 조선사회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도사역이었다. 새



백홍준 장로

서상륜 장로

문안 교회 창립보다 3년 전인 1884년에 시작한 황해도 송천의 솔내교회는 서상륜이 설립한 자생 평신도 교회이다. 또 그의 아우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를 목회하였다.

1887년 마침내 신약전서가 완역 출간되었다. "예수성교전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1883년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조선인 선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문성경에 한글로 토를 달아 "현토 한한 신약성서"란 이름으로 출간했고, 다음 해인 1884년에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를 출간했다. 한국 최초의 목사 선교사들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은 일본에 들려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발을 내려놓았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룩한 선교역사는 성경번역 사업이 그 출발점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바울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 (딤후3:15,16)이라고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고 강조한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상숭배에 떨어지기 쉽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마련해야 한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성경은 갈 수 있다. 선교사를 만나보지 못하고도 성경을

읽고 변화가 일어난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기 때문이다. (히4:12).

알젠티의 어느 산골에 사는 할머니는 자녀 14명을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다. 교회도 없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지나던 나그네가 주고 간 성경 한권이 그 할머니와 14명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능력이었다.

한 전도인이 복인도 어느 시골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성경을 읽어 주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천년 되었다고 하니가 그가 되물었다. "어느 나쁜 사람이 이 책을 그리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감추어 두는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로 된 성경을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받은 특권적 축복의 주인공인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생각해본다. **ㄷ**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 출간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

오렌지 영락교회 원로목사 (23년 시무)
멕시코신학교 D.Min.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기독교 교육 M.A.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B.A.
장로회 신학대학교 M. Div.
미주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시카고 기독교일보 칼럼니스트
해외한인장로회 제29대 총회장